

“마음으로 흙을 빚으면 세상 담는 그릇 탄생”

“도자기라는 것은 본래 그대로이지요. 특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체 망상을 던져버리고 오직 일념으로 그릇을 하나 하나 빚는 것이 바로 도공들의 선이 아니겠습니까.”

망상 버리고 일념으로

오직 분청만 만들 수 있다면 무엇보다 부럼치 않다고 말하는 청과 이은구씨(54, 도예가)는 문득 새로운 구상이 떠오르면 새하얀 작업복을 차려입고 요장

들에 의해서 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문양을 모두 생략할 수 있고 때로는 자연도관을 이용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토양에서 선조도공들의 손에 의해서 창조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세심하면서도 끈질김의 조화, 그속에서 선조들의 장인정신을 보았고, 장인정신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이러한 장인정신은 분청사기 제작의 커다란 밑거



도예가 이은구 씨

산문박의 禪

에 앉아 시간 공간조차 잃어버린 채 물레를 돌리고 문양을 새겨넣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다.

한번 자리를 틀고 앉으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는 진지한 모습 속에서 옹골찬 장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세속의 모든 욕망을 훌훌 털어버리고 출가하는 수행납자처럼 이씨도 오직 우리의 것(분청사기)을 되찾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도공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흙(地)과 물(水)과 불(火)과 공기(風)와 끊임없는 씨름을 하고 있다.

흙을 빚고, 문양을 새기고, 불을 지퍼 만들어진 분청사기들을 다시 깨어버리는 일련의 작업들을 수없이 반복했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일체가 다 존재하고 마음으로 일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흙을 다져 그릇을 빚고 가다듬는다는 것은 진실한 자신의 마음을 빚고 가다듬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족정서 장인정신 담아

돈독한 불심과 끈질긴 장인정신으로 33년째 분청사기만을 고집하며 수많은 흙을 다져 그릇을 빚어온 이은구씨에게 수행이란 따로 없다. 완벽한 분청의 제작을 위해 행주좌와하는 생활이 곧 수행이고 선이다. 30여년간 빚어온 각종 분청사기들은 그의 수행산물이다. “분청은 매우 자유분방합니다. 어떤

물이 되었다.

이씨가 추구하는 문양은 전통적인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등 사군자를 현대적 감각으로 변형시키기도 하고 일상적인 소재를 단순화시켜 독특함을 자아내 보이는로 하여금 환희심을 저절로 일게 한다.

더욱이 정교한 무늬와 오묘한 빛깔로 탄생된 분청사기는 은은한 녹색의 차와 함께 어우러지면 차를 마시는 다인들로 하여금 한층 차향을 깊게 해주며 다도 삼매에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분청의 신비한 색·독특한 문양 찾기 33년 행주좌와와 참선하듯 흙·물·불·바람과 씨름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를 꽃피운 고려와 조선시대의 선진 도자문화를 바탕으로 임태한 분청사기는 독창적이고 단순한 선과 우리 민족의 정서가 가득 담겨져 있어 우리 곁에 친근하게 다가온다.

“분청사기의 옛날 기법, 색깔, 문양, 기형 등을 현대감각에 맞게 조화시켜 신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것으로 재구성한다면가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현대 사람들이 옛도자기를 활용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사군자, 십장생등을 기본문양으로 구름무늬 포도문 자연을 소재로한 그의 작품은 특유한 색깔과 조화를 이뤄 국

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는 더 유명해 특별전 개인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정도다.

천고의 신비한 색과 독특한 문양개발로 인해 빚어진 그의 작품은 특히 전통 기법에 의거해서 현대적 감각을 담겨 살린 분청사기라는 점에서 호응도가 높다.

97년 인천서 세계도예전

“도자기는 꼭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지니지 않아도 장인들의 정성어린 피와 땀이 담겨진 도자기를, 항상 옆에 두고 보면 자연히 소양이 넓어지

고 만든사람의 숨결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씨는 도자기를 처음대하는 사람들이 고가의 작품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공들의 마음과 보는 감상방법이 가까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도자기를 올바르게 보는 방법이라고 귀띔한다.

“우리고유의 도예문화가 임진왜란으로 인해 오히려 일본 도예문화가 역수입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민속명절때 행해졌던 다례문화, 각 사찰에서 실시되는 차문화등을 찾아 옛 기법을 더욱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서울 올림픽당시 유근영, 지



삼화·이기선

생명 사랑하는 어린이로 키우자

아이들은 어른을 닮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그들의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자기를 마음먹은대로 행동한다. 어른들이 멋대로 행동하는데에는 그림자가 생긴다. 아이들이 어른을 닮듯 아이들은 그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밟게 된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정직하고 엄격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 그림자를 보이지 않게 살 수 없지만 그 그림자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어른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막되게 살면 안된다. 막된 행위를 하면 아이들이 바로바로 배워서 재미로 하기 일수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제 자신의 행위를 잘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할까 동시에 아이들의 놀이도 지켜 보아야 한다.

요사이에는 무섭고 놀라운 일이 많기도 하다. 국

민학교 아이들이 군것질하는 과자만 봐도 그렇다. 옛날 우리 어릴적에는 옛이나 강점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그것이 과배기 풀꽃 봉어봉, 또 뽕기로 변화하더니 수년전부터는 초코렛, 배배로가 판을 친다.

지렁이과자 사먹다니

이것은 경제적 향상에도 원인이 있지만 제과회사의 상술에 의해서 어린이의 취향이 바뀐데 큰 원인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상품들이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 어느 나라가 만든 과자인지 알 수는 없어도 혐오식품을 먹고 있다는데 애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렁이과자, 지렁이과자, 흙과자를 먹고 즐기고 있는 것이다. 징그럽고 흉물한 생물의 모형과자를 서로 다투어 사먹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무언가 이상 징후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은 정상적 농산물이 과일이나 채소를 먹도록 훈습

되어야 하고 그를 통해 생명, 곤충, 동물, 나무,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앞 가게에서 심지어는 경쟁의 식까지 받본채 지렁이, 거미, 흙과자를 즐기고 있으니 말이나 되는 것인가. 순수하고 자

자를 스텝없이 마구 잡아먹는 연습을 하는 것은 어딘가 우리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이 일탈하는 것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란 말이 있듯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어 내는 도덕적 생명애를 가진 아이로 길러야 한다.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들어 내는 것은 나 아닌 모든 생명은 중요치 않다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어린이들에게는 조그마한 미물이라도 신비하고 기이하게 보여야 한다. 국민학교 앞길에 새끼뱀이리를 보고 감격하는 저 맑은 눈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어른들 상술에 멍드는 아이들

이 간직하여야 할 마음은 저 생명과 함께 놀고싶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리하여 어린 뱀이리에 흠뻑도 주고 물 한모금 먹여주고 하는 마음, 이것이 생명을 아껴 사랑하고 귀히 키우고자하는 행위이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순수하고 고운 마음이 본래부터 있다. 천진난만하고 또한 무구한 것이다. 그런데 왜 아이들이 영악하게만 되었는가. 어른들의 그림자가 때가 묻고 말그러져 있는 것이 아닐까. 몇푼의 돈을 벌려고 이상아릇 한 상술의 꾀를 내어 아이들의 마음을 멍들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지렁이과도 어린이들이 생명살상의 길로 첫발을 내딛는 저 아이들에게 강한 빛을 발하는 적신호를 보내야 한다. 또한 어른들은 무관심과 소홀한 감시에 대한 경고와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상한 인격체가 형성되도록 어른들은 가르치고 지도하여야 한다. 물론 한결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소가 마시면 젖을 만들어 내고, 독사가 마시면 독을 만들어 낸다. 예가 합당하지 못했음은 모른다. 아이들이 지렁이나 거미를 먹는다면 여타의 생물이 마구 잡아먹을 수 있는 잡식동물이 발생하지 누가 정당하다. 이 잡식동물이 상생의 길로 접어들게 할지도 모른다.

어린이들은 무지개를 잡으러 가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늘에 걸려있는 일곱색 무지개. 이 얼마나 신비로운 하늘의 그림자인가. 이 그림을 갖고 싶어하는 자연스런 선망이 가슴에서 썩어 올라야 한다. 사람은 자연속에서 생기고 사리하는 생명에서 환희를 느끼고 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어린이가 흙물스런 곤충, 벌레의 질리과

아니냐 채소를 먹도록 훈습

아니냐 채소를 먹도록 훈습

아니냐 채소를 먹도록 훈습

아니냐 채소를 먹도록 훈습

아니냐 채소를 먹도록 훈습

아니냐 채소를 먹도록 훈습

법화산림법회 안내

법화경은 적극적인 삶을 가르칩니다. 누구나 보살이 되어 부처님의 이상을 현실 속에 구현하는 불자가 되라고 합니다.

법사: 현해 큰스님(월정사 주지)

시간: 불기 2539년 6월 2일(금) 오후 2시부터

장소: 본 연구원 법당

문의: Tel (02)736-6202, Fax (02)736-6205

한국불교발전연구원

김치의 비밀은 양념 속에

양념의 옛말은 '약념(藥念) 입니다. 약으로 알고 썼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김치 속의 양념들은 하나 같이 藥 중의 藥입니다.

익이 되는 우리 음식이야기/김치②

김치의 비밀은 양념 속에

우리가 만든 세계 최고의 소금

역사가 시작된 뒤로 이보다 더 좋은 소금은 없었습니다. 인산 김일환(1909~1992) 선생이 개발한 신비의 소금 인산염은 80여 가지 미네랄이 살아 있는 서해안 깊은 소금을 왕대나무 속에 넣고 지리산 기슭 황토로 동한 다음 송진물로 굳기를 아홉 번, 마지막 아홉 번째 거서서 1천도 이상 쉼 불에 녹여낸 약소금입니다. 세계 최고의 소금으로 김치를 담그세요. 아홉 번 구운 인산염. 세 번 구운 김장용 인산염.

150년을 잇는 '약소금' 건강의 맥

통신판매/인산가 736-3171

전화를 주시면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